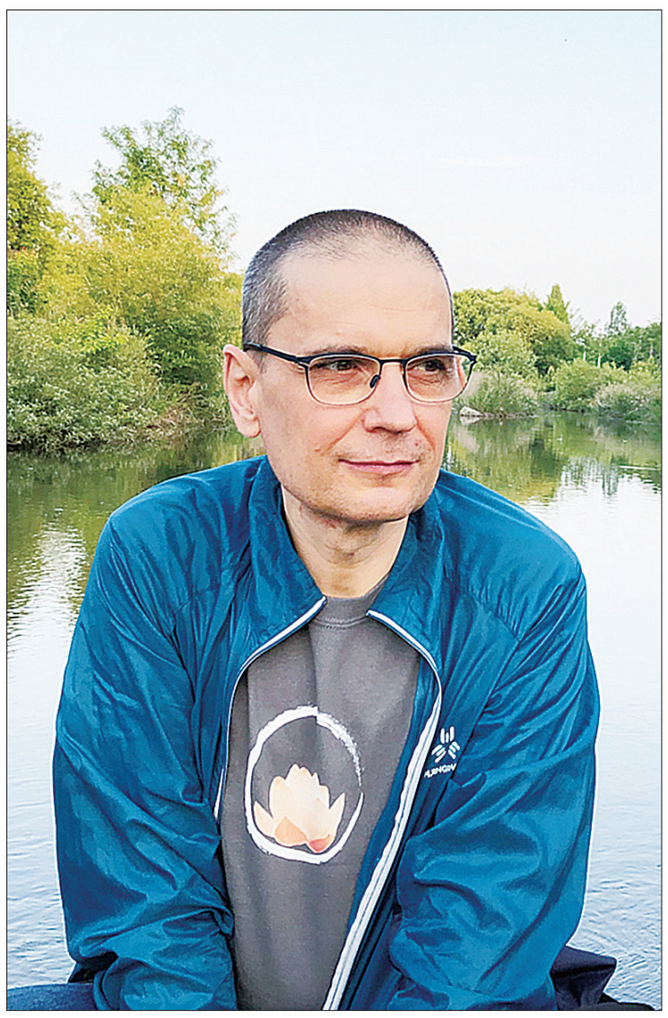
슬기로운 불교생활

'찐 불자'의 신행생활



"매일 15분 정진, '나'를 바꿉니다"

안제이 스텟즈 법사

매일 좌선, 염불로 수행 정진
폴란드서 '숭산 스님'과 인연
불교서 발견한 인생의 '해답'
"쉽다·어렵다 대신 오직 할뿐"

"딱-딱-딱."

새벽 6시, 날카로운 죽비 3타가 동도 트지 않는 하늘을 깨운다. 방석 위에 가부좌를 틀고 눈은 45도 아래로, 손은 가지런히 모은다. 밤사이 들쭉날쭉했던 호흡을 정돈하고 내면으로 빠져든다. 30분간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 지나면 굳었던 몸을 풀기 위한 108배가 이어진다. 외국인 법사 안제이 스텟즈(Andrzej Stec, 폴란드) 법사의 아침은 이렇게 시작된다.

깨어난 몸과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하나의 수행이 더 필요하다. 집 앞을 산책하며 염불하는 '만트라 워크(Mantra walk)'가 그것이다. 안제이 법사는 입으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혹여나 마음속 남아 있는 번뇌를 걷는 걸음걸음마다 말끔히 털어낸다.

날이 저물면 '나'와 '너'에서 나아가 '우리'를 위한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로 전 세계 평화와 화합을 염원한다. 잠들기 전까지 염불도 멈추지 않는다. 순간순간에 깨어있다면 다음날, 더 나아가 죽는 그 순간까지 걸림이 없다는 게 안제이 법사의 생각이다. 이렇듯 안제이 법사의 수행은 끝나는 법이 없다. 삶이 곧 수행이며 수행이 곧 인생이다.

안제이 스텟즈, 훤칠한 키에 푸른 눈을 한 이 폴란드 법사와 부처님 인연은 마음에 들끓던 질문에서 시작됐다.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지?" "나는 왜 태어났을까?" "죽으면 어디로 가지?" 등 풀리지 않는 삶의 의문들은 1981년 청년 안제이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의 방황은 한 한국인 스님을 만나 끝났다. 바로 해외포교의 선구자이자 선승(禪僧)이었던 숭산 스님이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진리를 찾으라"는 스님의 가르침은 그에게 감로수였다. 특히 숭산 스님의 저서 〈부처님께 재를 털면〉를 읽은 후 그가 품어왔던 모든 의문은 자연스레 해결됐다. 이후 국제승가 '관음젠스쿨'의 법사로서 한국에서 부처님 법을 전하고 있다.

"책에는 숭산 스님이 편지로 제자들과 문답하던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모든 것이 명확하고 명징했습니다. 특히 본성에 대한 가르침, '오직 모를 뿐' '나는 누구인가' 등은 제가 번민했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죠. 그 자리에서 저는 제가 진리에 가는 길에 들어섰다고 확신했습니다."

불법(佛法)을 삶의 방향으로 삼은 안제이 법사는 인생의 동반자 역시 불교에서 만났다. 참선하며 만난 한국인 일화 법사와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부처님이 이르셨듯, 같이 수행하는 도반(道伴)이 있다면 깨달음을 이룬 것과 같다. 두 법사는 오늘도 부부이자 수행자로서 함께 정진하며 수행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좌선에 든 안제이 스텟즈 법사.

꾸준한 수행으로 힘들었던 순간을 극복한 안제이 법사는 불교 초심자들에게 그 '노하우'를 전했다. 잠깐이라도 좋으니, 물러섬 없는 정진을 계속할 것. 큰 바위가 쉼 없이 흐르는 물방울에 깨지듯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번뇌도 끝없는 수행으로 해결해 나가라는 뜻이다.

"15분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하는 수행이 당신 전체를 바꿔 놓을 겁니다. 잘하는 게 중요치 않습니다. 일단 시작해 보세요. 쉽다, 어렵다는 잠시 두고 '오직 할뿐'입니다."

김민재 기자

"부처님 말씀 한자 한자 쓰며 佛며 들었죠"

정재현 달마사 청년회장

365일 네버엔딩 사경 수행 정진
사경한 '법구'들, 삶에 스며들어
부단한 수행 정진의 비결, '법우'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길"


사경 중인 정재현 회장.

정재현 달마사 청년회장(24, 중앙대 대학원 석사과정)의 하루는 사경으로 시작하고 사경으로 끝난다. 피곤해도 예외는 없다. 또다시 책상을 펴고 붓펜을 든다. 20~30분. 짧다면 짧지만, 또 길다면 긴 시간이다. 부처님 가르침이니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한다.

부처님 말씀을 따라 쓴지도 자그마치 365일, 꼬박 1년이다. 그가 1년 사이 필사한 경전은 총 3권, 부처님 친설이 담긴 〈법구경〉, 부모님 은혜를 설한 〈부모은중경〉, 집착하는 마음을 잠재우는 〈우리말 금강경〉이 그것이다.

정 회장에게 힘과 의지처가 되어준 경전의 법구(法句)들은 그의 삶도 바꿔 놓았다. 〈부모은중경〉 사경 때가 그랬다. 지방에 살던 그는 원하는 서울 소재 대학에 합격, 자취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본가에 자주 연락했지만 점차 연락 횟수가 줄더니 나중에는 거의 연락을 안했다.

그러나 〈부모은중경〉을 사경하면서 자연스레 부모님의 은혜를 곱씹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저절로 부모님 목소리를 찾게 됐다. 더 나아가 부모님에게 하는 말 한마디, 마음 씀씀이도 한 번씩 더 살피게 됐다. 그때 그는 느꼈다. 부처님 말씀은 그저 '좋은 말'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말이다.

"매일 사경하다 보니, 그 내용을 자연스럽게 되새기고 있더군요. 어느새 한 개 두 개씩,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제가 보였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더 이상 종이에 있지 않았어요. 어느새 제 삶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매일 사경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그를 지탱해 준 건 '법우'들이었다. 사경을 끝낼 때마다 서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은 그에게 큰 위로이자 원동력이었다.

"저희 달마사 사경 공동체는 하루 사경을 회향할 때 그날의 소감이나 느꼈던 점을 남기기도 하고, 서로의 수행을 독려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수행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제 수행의 전부를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경을 이어온 정 회장은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불교적인 삶'을 살게 됐다. 그런 정 회장이 불교 초보들에게 건넨 조언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 것"이었다. 불교가 익숙하지 않은 언어들과 난해한 철학으로 되어있다고 겁먹을 필요 없다. 시간을 쪼개 천천히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새 불교에 스며들어 있을 거라고 그는 장담했다.

"일단 시작들 하셨죠? 그럼 포기하지 마세요. 중간에 멈추면 끝입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그러다 보면 몸과 마음에 서서히 수행이 익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삶에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행복을 알게 될 겁니다. 정말로요."

김민재 기자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홍대선원 x 대치 엠마제과

JustBe 홍대선원과 대치미도 엠마제과점은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엠마보살님'에게는 두 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한 명은 출가하여 홍대선원 창립에 큰 공헌을 한 스님이 되었고, 다른 한 명은 JustBe의 대표가 되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35년동안 동네 주민들과 많은 단체들의 사랑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빵 하나하나를 부처님께 공양올리듯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사찰 대중공양, 선물세트, 단체주문, 택배 가능
대표상품: 만주 (팥, 완두, 흰), 찹쌀떡 (호두, 팥), 단팥빵 (호두, 팥)

EMMA 대치미도 엠마제과
전화 주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번호: 02-562-9886
주소: 강남구 삼성로 150, 미도상가 1층

'천년관음성지 우리절 옥천암'
서울 옥천암
주지 원경
신도회, 거사회 일동



서울 서대문구 홍지문길 1-38 옥천암
02-395-4031